

2011년 봄 학기
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24

고린도후서에서

(2)

하나님의 형상과 보배

성경: 고후 4:1-7

I.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—고후 4:4.

- A.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—4 절, 히 1:3.
1.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, 이 형상이 그리스도이시다—골 1:15.
 2.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, 그분은 살아 있는 인격—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—으로 표현되신다—요 1:18.
 3.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서 ‘하나님, 형상, 그리스도, 영광, 복음, 빛’은 모두 동격으로서, 동일한 놀라운 인격을 가리킨다.
- B.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밝히고 빛나고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—고후 4:4, 6.
1.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비추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,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밝히심으로 귀결된다—4 절.
 2.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.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랑스런 인격이심을 가리킨다—4, 6 절, 마 17:2.
 3.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. 그분을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—행 7:2, 히 1:3.
 4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.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. 그러므로 우리 속에 밝혀지신 것은 살아 있는 인격, 즉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이신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이다—고후 4:4, 6.
- C.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비추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—6 절.
1. 하나님의 비추심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가져야 한다—2:10.
 2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지만, 그분이 우리 ‘안에’ 비추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한다—시 27:4.
 3.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내적 비추심을 갖는다—고후 3:18, 4:6.
 4.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접촉 안으로 이끌려져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체험한다—롬 10:12.
- D.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,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,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다—빌 2:15, 요 1:18.
1.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비취진 다음,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어 나간다—마 5:16.

2.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밝히는 것이 있어야 한다.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취 내야 한다—빌 2:15.
3.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전파해야 한다—고후 4:5.

II.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—7 절.

- A.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밝힘으로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영접된다. 이제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재,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다—고후 4:6-7.
 1.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배인 하나님의 비추심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.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,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—고후 4:4, 6-7, 골 2:9, 3:4, 11, 고전 15:45 하.
 2. 놀랍고 귀하고 기이한 이 보배,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다—고후 13:5, 4:7, 빌 4:13.
 3. 이 보배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,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시다—고후 4:6-7, 골 3:4, 11.
- B. 이 보배—우리 안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—이 질그릇 안에 있다—고후 4:7.
 1. 이 보배를 담은 우리는 가치없고 약한 질그릇이다. 지극히 귀한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.
 2.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질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—3:6, 8-9, 4:1.
 - a. 2 장 12 절부터 3 장 11 절에 묘사된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에게 공통적인 유일한 사역이다.
 - b. 사도들은 많지만, 그들에게는 오직 한 사역—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새 언약의 사역—이 있다—행 1:17, 25 상, 20:24, 고후 3:8-9, 4:1.
 - c. 사도들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.
- C.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다. 만약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살려면 반드시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,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,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말아야 한다—고후 4:2-3, 7.
- D. 우리의 비춤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그들 안으로 분배된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것이다.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지극히 귀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될 것이다—6-7 절.